

우리나라 양봉산업지원 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촉구하며



경북대학교 박용구 교수

새 봄 햇살이 따사롭게 산천에 넘친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봄꽃들이 다투어

필 것이다. 산속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는 생강나무다. 노랑 생강나무 꽃을 보고 꽃피는 시기와 색깔과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산수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산수유는 중국에서 들어와 재배되는 것으로 야생화

가 되어 있지 않으니 산속에 핀 노랑꽃들은 대부분이 생강나무이다.

생강나무 꽃이 피고나면 곧바로 산벚나무 꽃들이 산속에 하얀 물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산벚나무 숫자가 많아진 초봄의 산속을 바라보면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다.

요즈음 산벚나무 꿀을 겨냥하여 벌을 기르는 양봉가들이 많아진다고 한다. 양봉은 낮은 온도에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벚나무 꿀을 따

기 위해서는 15도 정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벚나무 종자는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는데 새들이 먹이로 먹은 다음 그것을 산속 여러 곳에 산포시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강군을 육성하면 초봄 낮은 온도에서 개화하는 산벚나무를 좋은 밀원식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벚나무 꽃과 함께 진달래, 목련에 이어 철쭉이 피어나고 이어 우리 양봉인 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아까시나무 꽃이 피게 된다. 아까시나무 꽃은 우리나라 양봉업계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한 밀원수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백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아까시나무는 한국전쟁이후 헐벗은 산지녹화를 위해 많은 양의 종자가 파종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농촌의 연료림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주변에 식재하였다. 그 결과 민둥산들은 녹화를 이룩하고, 연료를 제공하여 다른 나무들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산은 더욱 푸르게 되었다.

아까시나무야 말로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간직하게 된 푸른 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수종인 것이다. 그런데 1980년 들어 자기 몫을 다한 아까시나무는 산림관계당국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거의 잊어진 수종이 되었다. 그전까지 아까시나무는 향기로운 꽃이 피고 그 꽃 속에는 질 좋은 화밀이 넘쳐흘러 우수한 밀원수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말이다.

자운영으로 시작되고 유채꽃으로 이어져 왔던 양봉산업이 80년대에 들어서에는 아까시나무를 밀원식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양봉농가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양봉산업의 호황은 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양봉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은 밀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아까시나무 덕분이었다.

1992년 조선일보에 아까시나무는 산을 망치는 나쁜 나무이므로 이 나무를 제거하는 국민운동이라도 벌이자는 아침논단이 실린 것을 계기로 임학계와 양봉업계가 사단법인 아까시나무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 뒤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아까시나무에 대한 연구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 나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같도록 활동해 왔다. 또한 세계 다른 나라의 아까시나무 연구기관과도 연대하여 공동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아까시나무의 우월성을 세계 여러나라에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아까시나무 황화현상은 2000년도에 들어와 아까시나무 잎혹파리와 함께 전국적으로 번져 아까시나무림은 급속도로 쇠약해져서 32만 정보의 아까시나무림이 1990년대 중반 17만정보로 2000년대 초 12만 정보에서 현재는 그 반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쇠퇴해 가고 있다.

이러한 아까시나무 황화현상에 대한 연구결과 특별한 병적인 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으며 아까시나무 숲의 지속적인 관리 부족이 현재 황화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양봉협회와 양봉협동조합의 용역연구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이 나무의 쇠퇴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아까시나무 연구회에서는 산림청과 양봉인 들에게 밀원수로서 아까시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림관계 당국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임업적 관리방안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아까시나무는 사방용 및 연료림으로 이용되어 그 목적을 다 이룬 뒤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토사구팽(兔死狗烹)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은 것이다.

어찌하여 아까시나무를 도입하여 녹화 및 연료

림으로 장려했던 산림당국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양봉산업지원기관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봉산업을 지원, 감독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양봉산업에 있어서 꿀벌은 공장의 기계와 같고 밀원은 원료와 같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원료가 없다면 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기계 관리와 원료 관리를 한 곳에서 해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꿀벌을 다루고 양봉산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농림해양식품부의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원료에 해당하는 밀원수 육성과 식재는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양봉산업도 서로 다른 곳에서 지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밀원수를 맡고 있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밀원식물관리와 벌꿀관리가 같은 기관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아까시나무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망밀원수 개발도 심도 있게 진행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헝가리는 1990년 22만 정보의 아까시나무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연구 육성되어 개량된 신품종을 대량으로 식재한 결과 2007년에는 40만정보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까시나무는 건축재, 가구재뿐만 아니라 벌꿀 생산 및 사료용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현재 어려움에 부딪쳐있는 우리나라 아까시나무림 관리개선책도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관리대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년에도 5월이 오면 탐스럽고 향기로운 아까시나무 하얀 꽃들이 많이 피어서 좋은 밀원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사구팽(兔死狗烹)된 아까시나무림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양봉산업 관리를 산림청에서 맡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임업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바이다.

